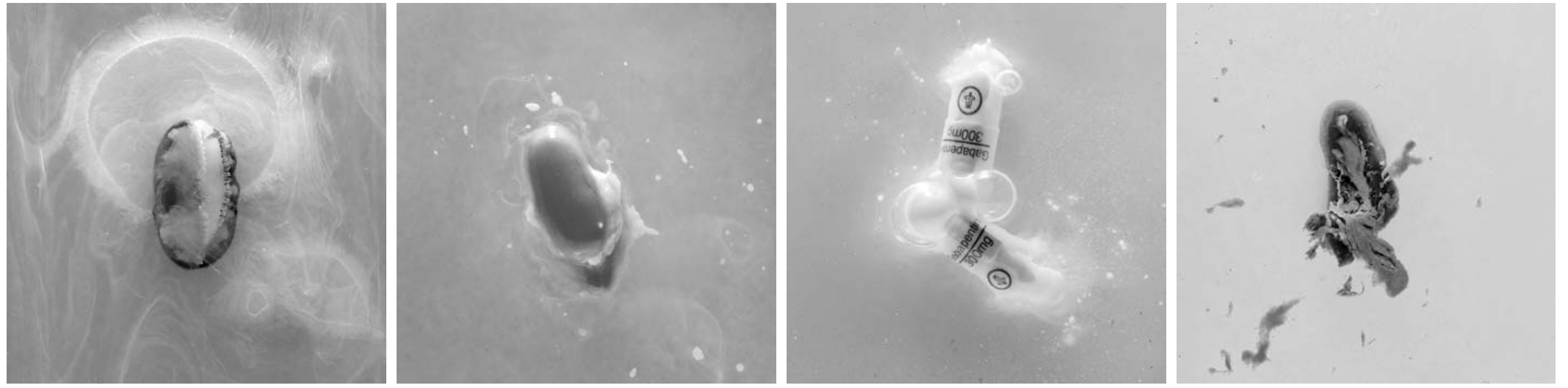


# 인간의 체온...36.5℃ 물속, 번져가는 불안의 감각들

황인호 '과잉반응'展...31일까지

현대인의 불안과 회복의 방식을 '알약'이라는 익숙한 소재로 풀어낸 사진 전시가 마련됐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서 기포·색·균열·침전 이미지로 감정 반응, 의존 구조 시각화



황인호 작가 개인전 '과잉반응(OVERREACTION)'이 오는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사진은 캔버스 프린트 방식을 활용한 '과잉반응' 연작.

오는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리는 황인호 작가 개인전 '과잉반응(OVERREACTION)'이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평균 체온과 비슷한 36.5℃의 물속에서 알약이 녹아가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작가는 물속에서 알약이 퍼져나가며 만들어내는 기포와 색, 균열과 침전의 장면을 통해 현대사회의 과잉된 감정 반응과 의존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작품 속 알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불안과 피로, 감정의 흔들림을 빠르게 안정시키고자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예민해진 사회의 감각 구조에 주목했다.

작은 증상조차 즉각적인 관리와 처방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의 흔들림 역시 스스로 견디기보다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오늘

날의 모습을 '과잉반응'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알약이 녹아 퍼지는 장면은 약물의 물리적 반응을 넘어, 불안과 피로, 감정의 동요가 확산되는 순간을 연상시킨다.

전시장에는 알약이 녹는 순간을 포착한 대형 사진 작품들이 배치됐다.

작품 속 이미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 조직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주의 풍경이나 낮은 생명체의 흔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천천히 가라앉는 심리 상태를 떠올리게 하며 관람객 각자의 경험과 감각을 환기시킨다.

작가는 "우리가 무심히 삼키는 작은 알약 안에 동시대 사회의 불안과 회복의 방식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한다. 빠른 회복과 안정이 당연한 가치처럼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몸의 느린 신호와 감정의 흐름은 점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번 작업은 약이나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와 효율 속에서, 몸과 감정이 충분히 흔들리고 회복될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작가는 알약이 녹아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이미지 이면에 자리한 불안과 의존의 감각을 함께 드러낸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 대해 "약이 물속에서 녹아 퍼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결국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라는 점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는 약을 소재로 하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감각에 대한 이야기"라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반응과 회복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이이남 작가, 중국 건군 100주년 기념 NFC 우표 제작 참여

송·명대 고전 회화 재해석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2027년 중국인민 해방군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는 NFC 우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027년 8월1일 '중국군 건군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문화 프로젝트로, 전통 회화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제작된다. 우표에는 이 작가가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한 동아시아 고전 회화 작품들이 수록된다.

이번 우표는 일반 인쇄물 형식을 넘어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우표 내부 또는 카드 홀더에 NFC 칩이 탑재돼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작품이 영상 형태로 재생된다.

화면 속 산수와 대나무 등은 움직임과 계절 변화 효과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아트로 구현된다. 수록 작품은 송·명대 중국 회화와 조선 회화를 아우른다. 북송 화가 곽희의 '조춘도', 명대 왕세창의 '산수도',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목죽도', 팔대산인의 화조화를 재해석한 '산-팔대산인 새' 등이 포함된다.

'조춘도'는 북송 궁정 화가 곽희의 대표작으로, 초봄 산세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풀어냈다. '산수도'는 시냇물과 폭포, 산중 은거 풍경을 담은 명대 산수화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목죽도'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소재로 삼았다. 실제 대나무의 휘어짐과 움직임 등을 반영해 화면 속에서 흔들리는 이미지로 재구성했다. '산-팔대산인 새'는 팔대산인의 기이한 화조화 표현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최명진 기자

## 목포문화재단, '2026 꿈의 예술단 플러스' 공모 선정

목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예술단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세대를 잇는 하모니'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시니어 합창을 결합한 세대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세대 간 소통과 공동창작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음악을 매개로 서로 경청하고 교감하면서 목포만의 창작곡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르를 넘나드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목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내 마음 담을 그릇 어떤 모양일까?

27-28일 광주문화재단 유아예술공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7-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유아 예술공연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 무료 운영된다.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는 2023년 기획·제작을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은 이머시브 유아극

이다. 연극과 무용, 샌드아트 영상을 결합한 참여형 공연으로, 광주 지역 유아문화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공연은 기존 소극장에서 벗어나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겨 규모를 확대했다. 넓어진 공간에 맞춰 무대 연출과 구성을 전면 보완해 이머시브 공연 특유의 몰입감을 더욱 강화했다.

작품은 7살 세린이 흙·물·불을 만나며 '그릇'의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인공지능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